국가전략, 제27권 1호 2021년 봄호, 157~182.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김정은 시대 경제정책 분석*

이 해 정** · 신 훈 식*** · 이 혜 진****

❖ 요 약 ❖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는 집권 초기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권력기반 강화기(2012.1.1.~2013.3.30.), ② 경제·핵 병진노선 추진기(2013.3.31.~2018.4.20.), ③ 경제 건설 총력기(2018.4.21.~2020.1.1.)에 발표한 문서들에 대한 분석 결과, 모든 시기에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살필 수 있다. 이는 북한 스스로 김정일 시대에 이미 이룩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에 이어 김정은 시대에는 경제강국을 실현하여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국가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정은은 꾸준히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강조하는 실용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개발구로 대표되는 거점 중심의 경제개발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율성 제고 및 인센티브 확대 조치 등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북한의 대내경제정책을 대표한다면, 2013년 이후 신설된 23개의 경제개발구는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핵심어: 텍스트 마이닝 분석, 김정은 시대, 경제강국 건설, 인민생활 향상,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경제개발구

DOI: 10.35390/sejong.27.1.202102.006

* 본 고는 통일연구원, 『김정은 정권 통치담론과 부문별 정책변화: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담화·연설 분석』 (2020년 12월 말 발간 예정) 보고서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주저자: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데이터마이닝연구실 연구원
**** 기타저자: 서울대학교 데이터마이닝연구실 연구원

Ⅰ. 서론

2012년 4월 15일 김정은은 자신의 첫 공개연설인 김일성 주석 탄생 백주년 기념 열병식 대중연설에서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1] 김정은은 인민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경제정책을 실행했으며, 이러한 정책은 효과를 거두고 있을까?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2019년까지 북한이 추진한 경제정책은 이전 시대와 비교할 때, 유사한 부분은 무엇이며 차이점은 무엇일까? 김정은 시기 경제정책이 변화한 부분이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이며, 그러한 변화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앞으로 북한의 경제정책이 변화한다면 그러한 변화는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로동신문』에 실린 김정은의 주요 연설문을 분석하여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을 살피고자 한다. 김정은 명의로 발표된 연설문은 국가의 과제와 정책 추진의 방향성이 담긴 자료로서 국정운영 추이를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분석대상이다.[2] 연설문에 담긴 경제 정책을 살핀다면 이에 기초해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와 함께 향후 경제정책 추진 방향을 읽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는 이유는 보다 심도 있는 문헌 분석을 통해 의미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이다.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북한 문헌 분석 연구는 많지 않으며, 그마저도 주로 정치 관련 분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3] 경제 관련 연구로는 『경제연구』에 수록된 논문 제목을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해 분석한 김수현·손욱(2020)의 연구 정도가 눈에 띈다.[4] 북한 경제를 연구할 때, 늘상 연구의 한계로

---

1) 『로동신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연설," 2012.4.16.

2) 박철수,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북한 지도자의 신년사 및 연설문 트렌드 연구,"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Vol. 26 No. 3, 2019. p. 44.

3) 오경섭·이경화,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KINU 연구총서 16-05. (서울: 통일연구원, 2016); 박종희·박은정·조동준, "북한 신년사(2014-2015)에 대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9집 제2호, 한국정치학회, 2015. pp. 27~61; 오윤정,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로동신문」 핵실험 관련 보도 분석』, 2018학년도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9. 박철수,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북한 지도자의 신년사 및 연설문 트렌드 연구,"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Vol. 26 No. 3, 2019. pp. 43~59.

4) 김수현·손욱, 『북한 「경제연구」로 분석한 경제정책변화: 텍스트 마이닝 접근법』, BOK 경제연구

지적되는 문제가 접근 가능한 자료의 부족으로 정확한 분석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접근은 학술적 의미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북한의 주요 연설문을 분석해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를 살피는 본 연구는 학술적 기여도뿐 아니라 정책적 기여도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심도 있는 텍스트 분석을 통해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 변화 추이뿐 아니라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예측하여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대북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로동신문』에 수록된 김정은 담화·연설문을 중심으로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Ⅱ. 텍스트 마이닝 분석 방법

텍스트 마이닝이란 자연어 처리 기술(Natural Language Processing)을 기반으로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와 지식을 추출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메일에서 제공되는 자동 스팸 메일 분류 기능이나 유사 문서 검색 등 텍스트 마이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텍스트는 대규모인 말뭉치(corpus)에서부터 문서, 문단, 문장 및 단어로 구분될 수 있고 각각의 형태에 따라 분석 방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보통은 문서(document)나 단어를 기준으로 분석하며, 방법론에는 대표적으로 빈도를 기반한 분석 방법과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의 알고리즘을 적용한 방법으로 구성된다.

1. 빈도 기반 분석 방법

가. 단순빈도(Term Frequency, TF)

단순빈도는 문서 내 등장한 단어들의 빈도를 계산해서 그 크기순으로 정렬하는

제2020-6호, 한국은행, 2020.

방식으로 중요한 단어일수록 문서에 많이 등장하는 특성을 반영한 수치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측정되는 수치로 문서마다 어떤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는 단어를 탐색함으로서 전반적인 문맥을 파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하지만 주어진 문서의 특성이나 문서가 기술하는 분야에 따라 특별한 의미없이 단순하게 빈번히 등장하는 단어가 중요하게 잡히는 경우가 존재한다.

나. 단어 빈도-역문서 빈도(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TF-IDF)

단순빈도를 통해 핵심단어를 파악하는 한계를 계선하고자 문서빈도(document frequency)를 고려한 TF-IDF 방법론이 사용된다. 우선 문서빈도는 특정 단어가 얼마나 많은 문서에서 등장했는지를 빈도로 나타내는 수치이다. TF-IDF는 단순빈도에는 비례하고 문서빈도에는 반비례하는 특성을 사용하여 특정 문서에서 개별 단어에 대한 중요도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높은 TF-IDF를 갖는 단어는 포함된 문서에서의 단순빈도(TF)는 높고 다른 문서에서는 적게 등장하여 문서빈도(DF)가 낮다.

2. 기계학습 기반 분석 방법

가. 텍스트 표현 방법

다양한 형태의 텍스트를 기계학습 방법론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텍스트를 수치 연산이 가능한 형태로 나타내야 한다. 단어는 문장과 문단, 문서를 구성하기 때문에 먼저 단어를 수치형으로 표현하고 이를 사용하여 문서를 표현하거나 단어와 문서 각각 개별적인 표현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하나의 단어 또는 문서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숫자들로 구성된 벡터(Vector)[5]가 사용된다. 동일한 차원의 벡터들 사이에는 거리(distance)[6]를 정의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사도[7]를 계산할 수 있다.

---

5) 일반적으로 벡터(Vector)는 크기와 방향을 포함한 물리량으로 정의되지만, 여기서는 위치벡터(position vector)로서 좌표공간에서 원점이 기준인 좌표를 의미한다.

6) 대표적인 거리로는 유클리디안(Euclidean), 맨하탄(Manhattan) 거리가 있다. 유클리디안 거리는 두 지점 사이의 직선 거리를 측정하는 반면, 맨하탄 거리는 직교 좌표계 위에 투영된 선분 길이의 합을 계산한다.

7) 대표적인 유사도로는 코사인(cosine) 유사도가 있다.

단어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표현되는 숫자의 형태(이산 또는 연속)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뉜다.

(1) 이산적 표현(Discrete Representation): One-hot encoding, Bag-of-Words(BoW)

문서를 표현하기에 앞서 우선 각각의 단어들을 One-hot encoding으로 표현하는데, One-hot encoding이란 기계학습에서 범주형 변수를 수치형 변수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범주들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것으로 범주의 종류만큼 0으로 구성된 벡터를 기본으로 해당 범주 값에 해당하는 위치에 1로 표현하는 방식이다.

텍스트 분석에서는 각각의 단어들이 범주 값으로 여겨지는데 분석하는 문서에 존재하는 단어들이 총 V개 있다면 단어들은 V-1개의 0과 1개의 1로 구성된 벡터로 표현된다.

BoW는 문서를 수치형 변수로 표현하는 가장 단순하고 직관적인 방법으로 문법과 단어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단어들의 빈도수로 표현하는 방법이다. 문서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듯이 BoW 표현법은 단어들의 One-hot encoding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법과 단어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문서 내 포함되어 있는 단어의 빈도를 벡터로 표현한 것이다. 이러한 BoW는 단어들의 빈도로 표현하기 때문에 높은 빈도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볼 수 있어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포함하는 단어의 종류가 많은 경우 표현하는 벡터의 사이즈[8]가 증가한다는 점과 문맥을 고려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2) 연속적 표현(Continuous Representation): Word2Vec, Doc2Vec

앞서 언급한 One-hot encoding으로 단어를 수치형 벡터로 표현하면 문맥을 고려하지 않아 모든 단어간 거리가 동일해지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비슷한 문맥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은 유사한 의미를 갖는 경향이 있다는 분산 가설(Distributed hypothesis)에 따라 단어들의 문맥적 사용을 고려한 표현법이 Word2Vec[9]이다.

8) 사용하는 단어가 10개인 경우, BoW로 표현되는 문서는 10차원 벡터(10개의 수)가 되며 단어를 10,000개 사용한 경우에는 10,000차원 벡터가 된다.

Word2Vec은 대규모의 텍스트 데이터를 통해 학습되며 학습된 결과는 각각의 단어마다 연속형 숫자로 구성된 벡터 값이다. 각각의 단어들이 연속형 숫자로 구성된 벡터로 표현되기 때문에 단어쌍마다 거리가 계산이 되고 이를 기반으로 유사도를 정의할 수 있다. 이 유사도를 통해 특정 단어에 대해 문맥적으로 유사한 단어들을 확인할 수 있다.

Word2Vec의 가장 큰 장점은 Analogy Reasoning을 학습할 수 있다는 점이다. Doc2Vec은 기존의 Word2Vec 모형에 문서를 구분하는 구조를 추가한 모형으로 단어와 같은 차원의 벡터로 학습한 경우 문서와 문서, 문서와 단어 사이의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어 유사한 문서 그룹화 및 문서에 문맥적으로 가까운 대표 단어들을 계산할 수 있다.

3. 통계적 모델 기반 분석 방법

가. 네트워크 분석(Network analysis)

Word2Vec과 Doc2Vec을 통해 단어와 문서를 연속형 벡터로 표현할 수 있고 벡터 표현법을 통해 단어-단어, 단어-문서 및 문서-문서의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었다. 유사도 계산을 통해 주어진 개별 단어나 문서에 대해 문맥적으로 비슷한 단어들을 검색할 수 있지만 여러 단어 사이의 다중 관계를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단어들의 상호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네트워크란 노드(node)와 엣지(edge)로 구성된 구조로 텍스트 분석에서 노드는 대게 단어를 나타내며 엣지는 단어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단어들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문장 내 동시 출현(co-occurrence)를 계산하고 이를 기반으로 그린 동시 출현 네트워크(co-occurrence network)를 통해 시기에 따른 단어들의 관계 변화를 살펴보았다.

모든 단어를 포함한 네트워크는 노드의 수와 엣지의 수가 매우 많아 시각적으로 살펴보기 어려워 동시 출현 빈도(co-occurrence)와 문서 빈도(document frequency)에 대한 한계값(threshold)을 정하여 네트워크의 복잡도를 조절하였다. 네트워크는 python

9) Mikolov, Tomas, et al. “Distributed representations of words and phrases and their compositionality.”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2013.

패키지의 networkx를 사용하였으며 네트워크 구축 알고리즘은 PageRank[10]이다.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고 크기가 큰 노드는 해당 카테고리 문서에서 중심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를 의미한다. 이러한 노드들은 동시 출현 빈도가 높고 다양한 단어들과 함께 등장하기 때문에 키워드로 볼 수 있다. 또한 중심 노드와 연결된 leaf 노드의 경우 다양한 단어들과는 동시 출현하지 않았지만 중심 노드와 빈번하게 등장했기 때문에 키워드의 개념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중심 노드를 기반으로 주변에 어떤 단어들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고 단어의 조합을 통해 문서들의 핵심 개념을 파악할 수 있다.

Ⅲ.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 분석

본 절에서는 『로동신문』에 실린 주요 담화를 활용하여 텍스트 마이닝 방법론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신년사와 연설문에 담긴 단어와 단어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를 살펴보고자 권력기반 강화기(2012.1.1.~2013.3.30.), 경제·핵병진노선 추진기(2013.3.31.~2018.4.20.), 경제 건설 총력기(2018.4.21.~2020.1.1.)의 세 시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주요 연설문들은 북한 경제정책 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로 텍스트 마이닝 방법을 이용하여 단어와 내용 분석을 통해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살필 수 있다.

1. 단순빈도 분석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분석 대상 문서는 17건이다. 대상 17건의 문서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의 신년사와 '김정은 동지께서 사회주의위업의 완성을 위한 과업 제시(조선중앙통신, 2016.5.7.)',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노동신문, 2016.5.8.)',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 결정서 주체 105(2016)년 5월 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에 대하여 (노동신문, 2016.5.9.)',

10) Page, Lawrence, et al. The pagerank citation ranking: Bringing order to the web. Stanford InfoLab, 1999.

‘김정은 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 진행(조선중앙통신, 2018.4.21.)’,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조선중앙통신, 2019.4.11.)’,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시였다(조선중앙통신, 2019.4.13.)’,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2일회의 진행(조선중앙통신, 2019.12.30.)’,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 3일회의 진행(조선중앙통신, 2019.12.31.)’, ‘우리의 전진을 저애하는 모든 난관을 정면돌파전으로 뚫고나가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조선중앙통신, 2020.1.1.)’ 등이다.

전체 문서에서 명사형 단어는 3,426개이다. 말뭉치 내 명사형 단어는 841개이고, 한 문서 내 평균 명사형 단어 수는 201.53개이다. 가장 많은 문서가 발표된 해는 2019년으로 5건이다. 2019년에 가장 많은 경제 분야 문서가 발표된 이유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와 제5차 전원회의에서 자력갱생과 정면돌파전을 강조하는 문서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표 1〉 명사형 단어 수

구분	2012~202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문서 수	17	1	1	1	1	4	1	2	5	1
전체문서 내 명사형 단어 수	3,426	279	221	348	273	1,273	337	57	507	402
말뭉치 내 명사형 단어 수	841	195	152	247	210	570	222	57	245	229
한 문서 내 평균 명사형 단어 수	201.53	279.00	221.00	348.00	273.00	318.25	337.00	28.50	101.40	402.00

〈그림 1〉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들을 워드 클라우드로 보여준다. 전체기간에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생산, 경제, 인민경제, 과학기술, 공업부문, 발전, 건설, 강화, 공장 강화 등이다. 〈그림 1〉 워드 클라우드는 매년 전체 사용단어들과 함께 많이 사용한 단어들을 보여준다. 2012년에는 생산, 공업부문, 함남, 강성국가 건설이 눈에 띄고, 2013년에는 생산, 인민경제, 경제강국 건설, 인민생활 향상 등이 두드러진다. 이는 2013년 3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2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로선(이하 경제·핵 병진노선)'을 채택하고,[11]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2014년에는 과학기술, 건설, 생산, 인민생활향상, 전략 등을 많이 사용하였다. 2015년에도 과학기술, 경제, 생산, 인민, 발전, 창조 등을 강조하였다. 2016년은 생산, 인민경제, 과학기술, 현대, 공업부문, 수준, 방법 등을 많이 사용하였다. 2017년은 생산, 개년전략, 자력자강, 경제, 기술, 공장, 전투, 강화 등이 두드러진다. 이는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이 중단되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자강력 제일주의'가 강조되고, 7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의 성과 달성을 위한 주민 동원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8년은 생산, 공업부문, 기지, 건설, 조선로동당, 위원장 등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는 북한이 2018년 4월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2017년 선포한 국가핵무력완성을 병진노선의 치적사업이라 평가하면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을 당의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이다.[12] 2019년은 생산, 공업부문, 건설, 조선로동당, 위원장 등이 눈에 띈다. 2020년은 조선로동당, 생산, 위원장, 건설, 사회주의, 전략, 기술, 인민, 정면돌파전이 두드러진다.

11) 『로동신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 2013.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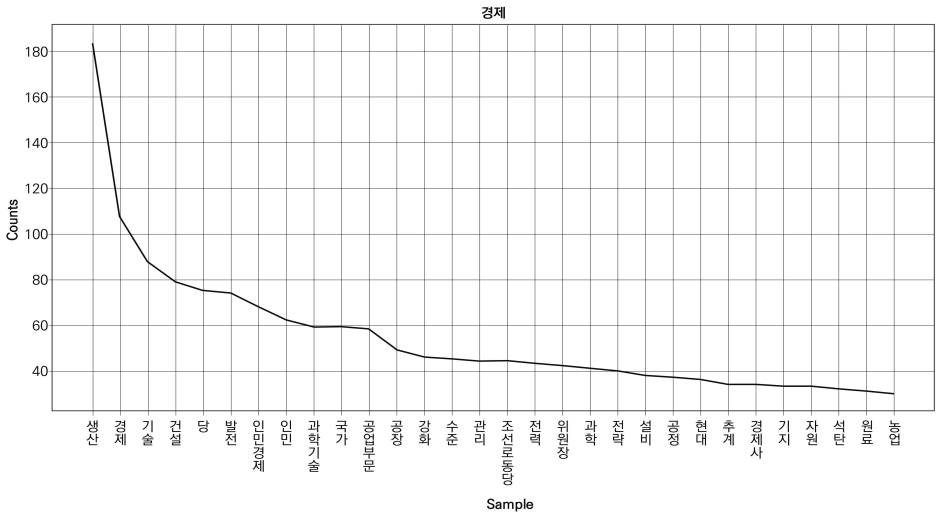
12)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진행," 2018.4.21.

〈그림 1〉 워드 클라우드(2012~2020)



경제 분야 단순빈도 분석은 전체 문서(2012-2020)와 연도별 문서에서 단어 사용 빈도를 분석하였다. 〈그림 2〉는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인 생산, 경제, 기술을 모두 포함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생산이다. 두 번째는 경제이고, 세 번째는 기술이다.

〈그림 2〉 단순 빈도



〈표 2〉는 전체 문서의 단순빈도 상위 10개 단어들 중에서 당·국가를 제외한 단순빈도 분석 결과다. 단순빈도 상위 단어들은 경제 분야에서 정책의 강조점을 보여준다.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는 생산이다. 생산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볼 때, 김정은 정권은 경제 부문에서 각 부문별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생산성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단순빈도(2012~2019)

키워드	단순빈도수
생산	184
경제	107
기술	88
건설	79
발전	74
인민경제	68
인민	62
과학기술	59
공업부문	58
공장	49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한 단어는 경제, 기술, 건설, 발전, 인민경제, 인민, 과학기술, 공업부문, 공장 순이다. 경제, 기술, 건설이 자주 사용된 이유는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자립경제강국, 지식경제강국 달성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자력자강의 정신과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강조하는 자립경제강국, 과학기술을 토대로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강조하는 지식경제강국 달성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의 전략적 노선으로 포함되었다. 발전, 인민경제, 인민, 과학기술이 강조된 것 역시 김정은이 2012년 집권 이후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는 집권 초기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자립경제강국, 지식경제강국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독려하였기 때문이다. 공업부문과 공장이 강조된 것은 각 공장·기업소의 생산 정상화 및 생산성 제고를 권면하는 한편,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 추진하면서 공장·기업소의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공식화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3〉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각 연도별 최상위 5개 단어 리스트를 보여준다. 각 연도별 최상위 단어를 보면, 김정은 정권이 각 연도별로 경제 분야에서 강조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2012년에 눈에 띄는 단어는 생산과 함남이다. 이는 "함남의 불길을 따르자"로 대표되는 김정일의 유훈을 잘 받들 것을 강조하면서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이 김정일의 유훈이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상기시켰기 때문이다. 2013년에는 경제강국건설과 인민경제를 많이 사용하였다. 2013년 3월 경제·핵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경제강국을 통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2014년에는 건설, 생산을 자주 사용하였다. 이는 2014년 5월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5.30 담화를 통해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를 공식화하여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였기 때문에 생산이 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3〉 단순빈도 최상위 5개 단어 리스트

2012~2020(전체)		2012		2013		2014		2015	
키워드	단순 빈도수	키워드	단순 빈도수	키워드	단순 빈도수	키워드	단순 빈도수	키워드	단순 빈도수
생산	184	생산	10	생산	12	건설	12	경제	7
경제	107	기술	7	경제 강국건설	6	생산	9	과학기술	6
기술	88	당	6	당	6	과학기술	8	인민	6
건설	79	함남	5	인민	6	인민	6	생산	6
당	75	수준	5	인민경제	6	인민 생활향상	4	당	5

2016		2017		2018		2019		2020	
키워드	단순 빈도수	키워드	단순 빈도수	키워드	단순 빈도수	키워드	단순 빈도수	키워드	단순 빈도수
생산	92	생산	12	생산	15	조선 로동당	23	경제	18
기술	56	개년전략	6	공업부문	7	생산	21	조선 로동당	17
당	38	경제	6	전력	6	위원장	21	위원장	17
건설	35	기업	5	건설	6	경제	17	국가	11
인민경제	32	기술	5	기지	4	발전	16	경제사	10

2015년에는 경제와 과학기술의 사용빈도가 높다. 2015년은 가뭄으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1.1%를 기록하여 경제가 더욱 강조되었으며, 2016년 '자강력제일주의'를 공식화하기 앞서 과학기술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의 강조는 시장화 진전으로 인한 지나친 대중 무역의존도를 경계하고 자체의 기술력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는 경제의 주체화와도 맞닿아있다. 2016년에는 생산, 기술, 당, 건설, 인민경제의 사용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16년 5월, 36년 만에 개최된 제7차 당대회에서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당면 과업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을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2017년은 생산, 개년전략, 경제, 기업, 기술의 사용빈도가 높다. 이는 2016년 제시된 5개년 전략 수행을 독려하고, 강화된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응하여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 돌파를 위해 '70일 전투', '200일 전투' 등 '전민총돌격전'

을 주문했기 때문이다.[13] 2018년은 생산, 공업부문, 전력, 건설, 기지를 강조하였다.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2017년 선포한 국가핵무력완성을 병진노선의 치적사업이라 평가하면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을 당의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제시하였다.[14] 이는 북한이 스스로 핵무력을 완성하였다고 선언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김정은이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에 주력하겠다는 의미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생산, 건설 등의 사용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2019년에는 조선로동당, 생산, 위원장, 경제, 발전의 사용빈도가 높다.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 국명 장기화에 대비하고자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자력갱생 기조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 경제, 발전을 강조하였다.

2. TF-IDF 분석

〈표 4〉는 TF-IDF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김정은 정권이 2012년부터 2020년 사이에 사용한 단어들 중에서 함남, 생산, 기술의 중요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함남이 강조되는 이유는 김정은이 함남의 불길을 따르자는 것을 가장 대표적인 김정일의 유훈으로 강조하였으며, 이를 다시 자력갱생의 구호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생산과 기술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2016년 4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이 중단되고,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아지자 무역 일변도를 경계하면서 북한 자체의 기술력으로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강성국가건설의 중요도가 높은 이유는 북한이 경제강국 건설을 통한 강성국가건설을 경제 목표로 제시하고 지속적으로 이를 독려하였기 때문이다.

2016년에는 과학기술과 생산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16년 신년사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제재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앞세운 국산화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건설과 연구의 중요도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16년 당대회에서 자립경제강국, 지식경제강국을 건설하기

13) 『로동신문』, "신년사," 2017.1.1.
14)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진행," 2018.4.21.

위해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를 강조하고, 이를 통해 경제강국 건설을 달성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2018년에는 생산, 공업부문, 건설, 전력, 기지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2018년 정권수립 70주년에 맞춘 경제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독려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019년에는 생산, 활성화, 자원, 공장, 건설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도 경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19년 4월 개정 헌법 제33조를 통해 내각의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명문화[15]하는 등 생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표 4〉 TF-IDF 키워드 리스트

2012~2020(전체)		2016		2018		2019	
키워드	TF-IDF 점수	키워드	TF-IDF 점수	키워드	TF-IDF 점수	키워드	TF-IDF 점수
함남	0.3891	과학기술	0.3344	생산	0.6114	생산	0.2456
생산	0.2878	생산	0.2867	공업부문	0.2853	활성화	0.1954
기술	0.2132	당	0.2867	건설	0.2445	자원	0.1954
강성국가 건설	0.2038	건설	0.2867	전력	0.2445	공장	0.1954
당	0.1827	연구	0.1497	기지	0.1630	건설	0.1947

주: 제시되지 않은 연도는 문서가 1개로 IDF 계산 불가.

3. 네트워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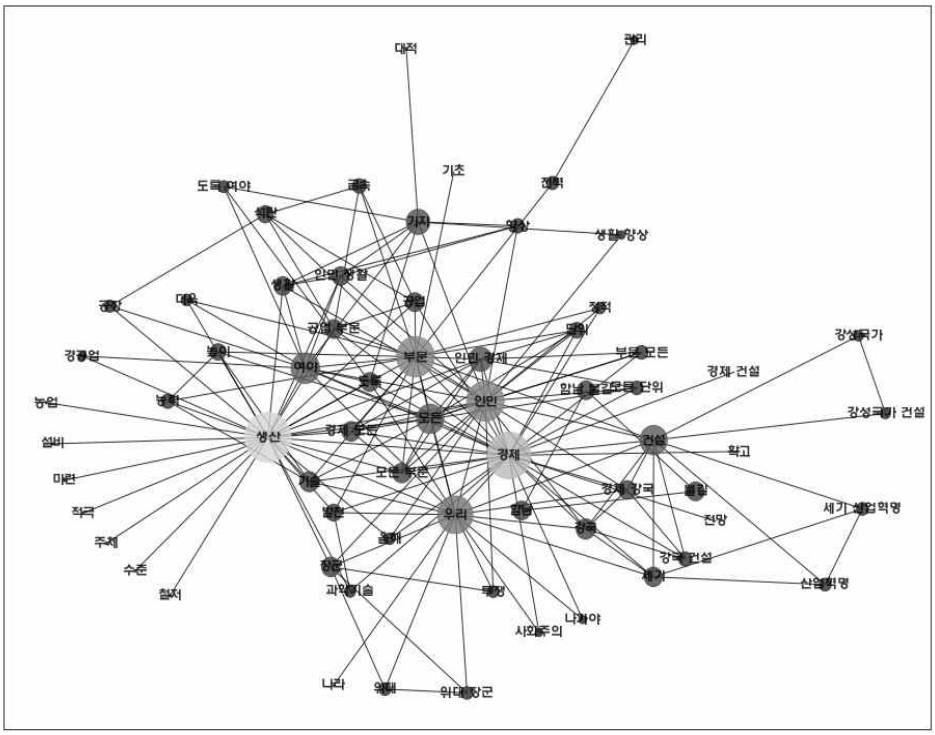
가. 권력기반 강화기(2012.1.1.~2013.3.30.)

이 시기 북한은 “함남의 불길을 따르자”로 대표되는 김정일의 유훈을 잘 받들 것을 강조하면서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이 김정일의 유훈이라는 사실을

15) 2019년 4월 개정 사회주의 헌법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지속적으로 언급하였다.[16] "우주를 정복한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경제강국건설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자"[17]는 구호를 통해 ICBM급으로 평가되는 은하 3호 장거리미사일 발사 성공 등 정치·군사적 성과에 대한 자신감을 경제 성과 달성 독려에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3년 신년사를 통해"경제강국 건설은 오늘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위업 수행에서 전면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며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를 더욱 튼튼히 하고 잘 활용하여 생산을 적극 늘이며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킬 것을 주문하였다. 이에 따라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사회주의증산경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림 3〉 권력기반 강화기(2012.1.1.~2013.3.30.)



16) 『로동신문』,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2012.1.1.; 『로동신문』,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탄생 100돐 경축 열병식에서 하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연설." 2012.4.16.

17) 『로동신문』, "신년사," 2013.1.1.

〈그림 3〉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생산, 인민, 경제, 모든, 부문 등의 노드를 중심으로 단어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위대, 장군, 함남 불길 등의 표현이 눈에 띄는데 이는 이 시기 북한이 김정일의 업적을 칭송하고 그의 유훈을 관철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유훈 사업을 우선시한다는 측면에서도 경제강국 건설와 인민생활 향상이 이 시기에 가장 강조된 표현임을 보여주는 분석 결과이다.

나. 경제·핵병진노선 추진기(2013.3.31.~2018.4.20.)

북한은 2013년 3월 31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6기 2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채택하였다.[18] 경제·핵 병진노선은 김일성 시대의 '경제·국방병진노선', 김정일 시대의 선군경제건설노선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병진로선은 국방비를 늘이지 않고도 적은 비용으로 나라의 방위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큰 힘을 돌릴 수 있게 합니다"[19]라고 주장하는 등 실리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김정은 시대의 차별적 노선이다. 북한은 스스로 "당당한 핵보유국이 된 오늘 우리에게는 강위력한 전쟁억제력에 기초하여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 자금과 로력을 총집중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 마련"되었다고 새로운 노선을 채택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20] 나아가 2016년 5월 제7차 당대회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은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 노선'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또한,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식의 경제관리방법을 연구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원산지구와 칠보산지구를 비롯한 나라의 여러곳에 관광지구를 잘 꾸리고 관광을 활발히 벌리며 각 도들에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고 특색있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대내외 경제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라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을 채택하고, 2014년 5월에는'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식경제관리방법을

18) 『로동신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하신 보고,"2013.4.2.
19) 위의 기사.
20) 『로동신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 전원회의에서 하신 결론," 2013.4.2. 북한은 2012년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면서 서문에 "김정일 동지께서는 … 정치사상 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 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라고 적어 핵보유국임을 명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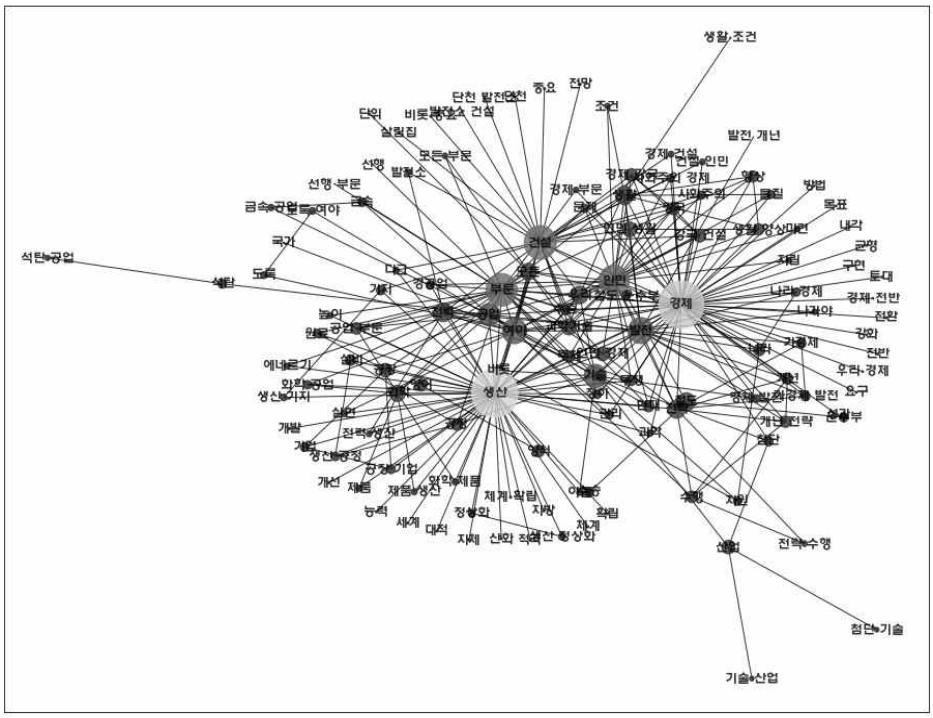
확립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5.30 담화를 통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공식화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나아가 2016년 5월, 36년 만에 개최된 제7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당면 과업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을 제시하였다.[21] 2016년 5월 북한이 발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전략적 로선으로 자력자강을 통한 자립경제 강국 실현,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통한 지식경제 강국 건설을 내세우고 있다. 5개년 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 사이 균형을 보장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외경제관계를 확대발전"시킬 것을 당부하면서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일변도를 없애며 가공품수출과 기술무역, 봉사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무역구조를 개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특히, "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 그 운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22] 한편, 북한은 2016년 신년사에서 '자강력제일주의'를 강조하며 본격적인 제재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앞세운 국산화 전략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4차 핵실험 이후 개성공단이 중단되고,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악랄한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 돌파를 위해 '70일 전투', '200일 전투' 등 '전민총돌격전'을 주문하면서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으로 사회주의의 승리적 전진을 다그치자"는 전투적 구호도 등장하였다.[23] 2018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고난의 행군 시기였던 1997년 -6.5% 이후 최저치인 -4.1%를 기록하였다. 북한은 제재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반영한 듯 "생존을 위협하는 제재와 봉쇄의 어려운 생활 속"에서"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는 것을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 과업으로 제시하였다.[24] "우리 당은 인민생활 문제를 천만가지 국사 가운데서 제일 국사로 내세우고 있습니다."[25]라고 강조하는 등 이 시기에도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은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모습이다.

〈그림 4〉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생산, 경제, 인민, 건설, 발전, 전략,

21)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한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2016.5.8.
22) 위의 기사.
23) 『로동신문』, "신년사," 2017.1.1.
24) 『조선중앙통신』, "김정은동지께서 새해 신년사를 하시였다," 2018.1.1.
25) 『로동신문』, "신년사," 2016.1.1.

기술 등의 노드를 중심으로 단어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과학기술과 주체, 인민경제, 투쟁, 전략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살필 수 있는데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제재가 심화되고 장기화되자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주체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등 자력갱생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 노드를 중심으로 경제강국 건설, 경제 발전, 전략 등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2018년 정권수립 70주년에 맞춘 경제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독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림 4〉 경제·핵병진노선 추진기(2013.3.31.~2018.4.20.)



다. 경제건설 총력기(2018.4.21.~2020.1.1.)

북한은 2018년 4월 2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2017년 선포한 국가핵무력완성을 병진노선의 치적사업이라 평가하면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을 당의 새로운 전략노선으로 제시하였다.[26]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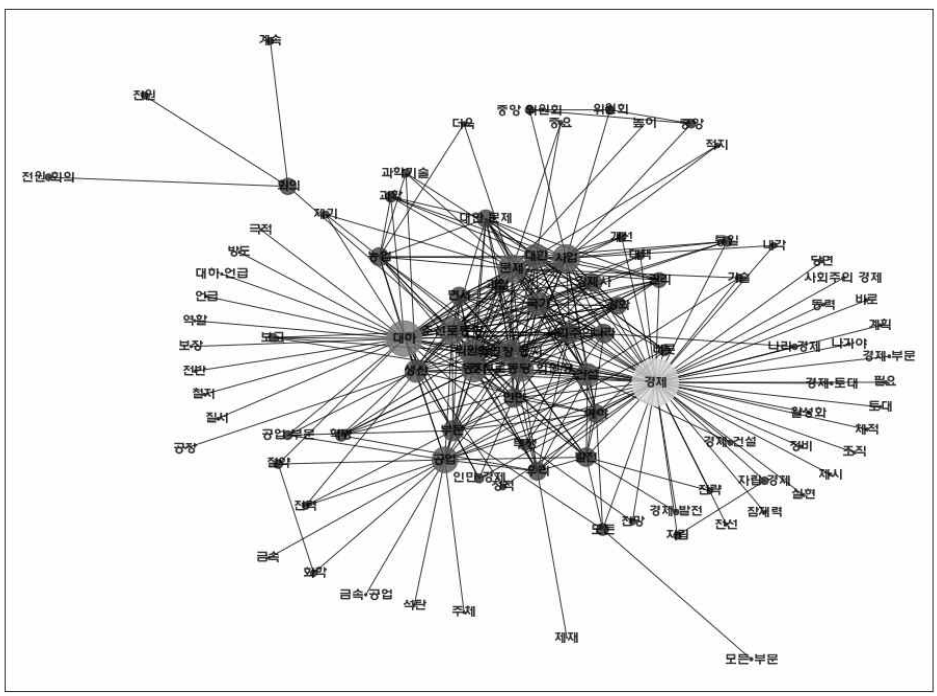
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로선"이라고 천명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 전환의 주요 배경은 2017년 11월 29일 핵무력 완성 선언이다.[27] 핵무력 완성으로 인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당과 국가의 전반 사업을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집중할 것을 새로운 전략 노선으로 채택한 것이다. 북한 스스로도 "장기간의 핵 위협을 핵으로 종식시킨 것처럼 적대세력들의 제재돌풍은 자립, 자력의 열풍으로 쓸어버려야"[28] 한다고 새로운 전략노선 채택 이유를 밝히며, 자립경제 강조를 통해 제재 국면 장기화에 대응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후 북한은 4.27 남북 판문점 선언, 6.12 북미 싱가포르 선언, 9.19 남북 평양공동선언 등 연쇄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나서며 북핵 논의 진전을 통한 제재의 완화 및 해제와 경제 정상화를 꾀했다. 2019년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29]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2019년 2월 북미 하노이회담이 결렬되면서 이러한 노력은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자립적민족경제에 토대하여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줄기차게 전진시켜나감으로써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수 있다고 혈안이 되여 오판하는 적대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30]며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자력갱생 기조를 더욱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늘 우리 당에 있어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보다 더 절박한 혁명임무는 없다"고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31]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도 경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 2019년 4월 개정 헌법 제33조를 통해 내각의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명문화하였다.[32]

---

26)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동지의 지도밑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 진행," 2018.4.21.
27) 북한은 2017년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
28)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2019.4.13.
29) 『조선중앙통신』, "신년사," 2019.1.1.
30)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2019.4.11.
31) 『조선중앙통신』, 2019.3.9
32) 2019년 4월 개정 사회주의 헌법 제33조 국가는 생산자대중의 집체적지혜와 힘에 의거하여 경

〈그림 5〉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경제, 투쟁, 개선, 대책, 강화, 관리 등의 노드를 중심으로 제재, 자립, 과학기술 등의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도 경제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각책임제·내각중심제를 강조하고 있다. "자력갱생과 자립적민족경제는 우리식 사회주의의 존립의 기초, 전진과 발전의 동력이고 우리 혁명의 존망을 좌우하는 영원한 생명선"이라면서 "경제사업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도를 강화하고 실리를 보장하며 효률을 높이는 립장에서 경제사업을 조직진행하고 절약투쟁을 강화"[33]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5〉 경제건설 총력기(2018.4.21.~2020.1.1.)



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며 내각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인다. 국가는 경제관리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를 실시하며 원가, 가격, 수익성같은 경제적공간을 옳게 리용하도록 한다.

33)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2019.4.11.

V. 결론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인민들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는 집권 초기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권력기반 강화기(2012.1.1.~2013.3.30.), ② 경제·핵 병진노선 추진기(2013.3.31.~2018.4.20.), ③ 경제 건설 총력기(2018.4.21.~2020.1.1.)에 발표한 문서들에 대한 분석 결과, 모든 시기에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은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살필 수 있다. 이는 북한이 김정일 시대에 이미 이룩했다고 주장하는 사상강국, 정치강국, 군사강국에 이어 김정은 시대에는 경제강국을 실현하여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국가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정은은 꾸준히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2013년 3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을 채택하면서 대내경제정책으로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처음으로 공식 언급하였으며, 대외경제정책으로는 경제개발구 발전과 대외무역의 다양화, 다각화를 강조하여 김정은식 경제정책을 천명하였다.

김정은 시대 북한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강조하는 실용주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개발구로 대표되는 거점 중심의 경제개발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별 경제주체들의 자율성 제고 및 인센티브 확대 조치 등을 핵심으로 하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이 북한의 대내경제정책을 대표한다면, 2013년 이후 신설된 23개의 경제개발구는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 삼지연시, 양덕 온천문화휴양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 3대 관광개발지 개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북한은 대북제재를 우회하면서도 경제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관광산업 육성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식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하면서 과학기술 중시 정책과 국산화 정책을 통해 내부적 결집과 역량 강화를 독려하고 있다. 북한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으로 대표되는 시장경제 영역의 확대는 법제화로도 진행되고 있다. 2014년부터 농장법, 기업소법, 인민경제계획법 등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16년 제7차 당대회를 통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전면적 확립을 공식화하였다. 나아가 2019년 4월 개정헌법에서 사회주의기업책임

관리제를 삽입하면서 헌법상 명문화까지 이루어졌다. 또한, 내각 중심제를 통해 내각 주도의 경제개선조치 추진과 경제계획 수행을 통한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김정일 시대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특구'와는 달리 김정은 시대에는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한 전방위적 외자 유치 정책이 추진되었다. 과거 평양과 멀리 떨어진 접경지역 중심으로 '점'형식의 5개의 특구를 운영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김정은 시기에는 23개의 경제개발구를 새롭게 지정하면서 그 가운데 2개의 경제개발구를 평양에 설치하는 등 경제개발구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편, 2018년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며 사회주의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서 자력갱생을 강조하면서 생산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중장기 목표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북한은 지속되는 대북 제재와 집중 호우, 코로나 19 등 경제 삼중고를 겪고 있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내부 결집과 역량 강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용주의 경제정책에 기초한 생산 및 경제관리의 정상화를 위해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강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추진될 북한의 경제정책의 방향이 김정은 시대에 꾸준히 진행되어 온 시장경제 영역의 확대 및 법제화의 흐름에 크게 역행하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을 계획화 및 경제관리 체계에 포함시키고 있는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가 헌법상에 명시될 정도로 기업 관리제도의 제1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되기 때문이다.[34]

북한의 '실용주의 추구', '경제발전거점조성', '관광산업 육성' 등으로 대변되는 북한의 대내외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남북경협 기조인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전략 과제를 수립해나갈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간 합의한 동해관광공동특구와 서해경제공동특구 조성을 위한 실천적 고민이 요구된다.

한편,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경제 관련 연설문을 분석하여 김정은 시대의 경제정책 추진 기조를 분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총론 수준의 분석에 그치고 있어 구체적 산업별 분석이나, 이전 시대와의 비교 분석을 진행되지 못한

34) 이석기·주현·빙현지, 『한반도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한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 연구보고서 2019-928(세종: 산업연구원, 2019), p. 58.

것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향후 연설문뿐 아니라 북한의 주요 언론 기사 등을 활용해 분석 대상의 범위를 확장하고, 구체적 산업 분야별 분석 및 이전 시기와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보다 구체화된 후속 연구를 진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투 고 일: 2020. 12. 23.
심사완료일: 2021. 02. 02.
게 재 일: 2021. 02. 28.

참고문헌

김수현·손욱.『북한「경제연구」로 분석한 경제정책변화: 텍스트 마이닝 접근법』. BOK 경제연구 제2020-6호, 한국은행, 2020.

오경섭·이경화.『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및 통일담론: 텍스트마이닝을 이용한 분석』. KINU 연구총서 16-05. 통일연구원, 2016.

이석기·주현·빙현지.『한반도신경제구상 실현을 위한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 연구보고서 2019-928. 세종: 산업연구원, 2019.

박종희·박은정·조동준, "북한 신년사(2014-2015)에 대한 자동화된 텍스트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9집 제2호, 한국정치학회, 2015.

오윤정,『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로동신문」핵실험 관련 보도 분석』, 2018학년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9.

박철수,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북한 지도자의 신년사 및 연설문 트렌드 연구,"『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Vol. 26 No. 3, 2019.

Mikolov, Tomas, et al. "Distributed representations of words and phrases and their compositionality."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2013.

『로동신문』.

『조선중앙통신』.

Economic Policy Analysis of Kim Jong Un's Era through Text Mining Analysis

Hae Jung Lee, Hun Sik Shin and Hye Jin Lee

Text mining analysis revealed that since the Kim Jong Un administration in 2012, the government has steadily emphasized the construction of an economic powerhouse and the improvement of people's lives in order to realize the promise made in the early days of the regime that the people would not tighten their purse strings again. Analysis of documents published during the period of strengthening the power base (January 1, 2012-March 30, 2013), the period of promoting economic and nuclear translation (March 31, 2013-April 20, 2018), and the period of total economic construction (April 21, 2018-January 1, 2020) suggests that the people's lives have been improved and the economic power has been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economic power. This is because the government aims to build a socialist nation by becoming an economic powerhouse in the Kim Jong Un era, following the ideological, political and military powers that North Korea claims to have achieved during the Kim Jong Il era. Kim Jong-eun has been emphasizing the construction of an economic powerhouse and the improvement of people's lives.

During the Kim Jong Un era, North Korea promoted pragmatic economic policies emphasizing the efficient use of resources and actively promoted economic development strategies centered on bases represented by economic development zones. If the North Korean-style economic management methods, which focuses on improving the autonomy of individual economic entities and increasing incentives, represents North Korea's inward economic policy, the 23 newly established economic development zones since 2013 show the direction of North Korea's outward economic policy.

Keywords: Text Mining Analysis, Kim Jong-Un Era, Construction of an Economic Powerhouse, Improvement of People's Lives, Nouth Korean-style Economic Management Methods, Economic Development Zones